

과목명: 대학글쓰기
학과명: 작업치료학과
이름: 문소현
학번: 202211473

인간, 예술, AI

평: 1) 좀 더 자신감 있게 발표할 필요가 있음. 2) 반론에 대한 재반론이 없음. 3) 전체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구분이 명확하고 짜임새가 있어서 앞으로 더 좋은 에세이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음. 다만 더 자신감 있는 발표 태도가 필요함.

1. 서론

최근 미국에서 열린 미술전에서 AI가 생성한 그림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 논란이 사회적 이슈에 올랐다. 이에 일부 예술가들은 ‘부정행위’라고 하였고, 논란의 작품 주인공인 앨런은 자신은 규칙을 어기지 않았고, 아무 잘못이 없다고 답하였다. 이에 네티즌들은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였다.¹⁾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 당신은 예술가, 예술 작품이란 무엇이라고 답하겠는가? 그리고 당신은 ‘AI가 예술가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하겠는가? 필자는 본 글에서 AI가 예술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이 글에서 예술, 예술가란 무엇인지, AI의 발달과정과 지금의 AI는 어떤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또 모방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본 글에서 AI가 예술가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AI를 인간과 완전히 같은 예술가라고 보진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과 AI의 다른 점이라면 인간은 자의적이면서 타의적이고 AI는 타의

1) 김지연, “美 미술전서 AI가 그린 그림이 1위...”이것도 예술인가” 논란”, 연합뉴스, 2022년 11월 13일 접속, <https://www.yna.co.kr/view/AKR20220904008400009>

적이라는 점이다. 지금보다 더욱 발전된 AI가 만들어진다면 달라질 이야기이지만 현재의 AI는 사람이 처음 시작을 작동시키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2. 본론

2.1. 예술, 예술가

예술은 사전상으로 미적(美的) 작품을 형성시키는 인간의 창조 활동으로 정의된다.²⁾ 하지만 예술이라는 정의 자체도 인간에 의해 서술된 것이며, 그 주체가 ‘인간’이라 단정 짓고 있다. 인간만이 아닌 다른 존재도 예술가가 될 수 있지 않은가?

당신이 그림을 그려 완성했을 때 자신을 예술가라고 할 수 있는가? 예술가라는 것은 자격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술가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명확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보통 예술가(藝術家)란, 예술을 직업 혹은 생업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일컫는다.³⁾ ‘로봇은 예술을 직업으로 삼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 예술가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에 본 글에서 필자는 예술을 위해서 프로그래밍 된 AI라면 그것이 예술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필자가 생각하는 예술가와 비예술가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타인의 인정’이다. 자신을 제외한 타인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예술가와 비예술가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예술 관련 종사자, 일반인이다. 위의 말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말에 따르면 AI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AI는 예술가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AI가 인간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두고 생각하는 것에서 사람들이 AI를 예술가로서 인정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AI는 인간이 아니고 인간에 의해 인터넷상에 놓인 것들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군중심리에 대해 생각해 보자. 군중심리란 사회심리 현상의 하나로 여러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였을 때 개별 주체의 일상적인 사고와 다르거나 혹은 같더라도 그 범위를 뛰어넘는 행동을 하게 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⁴⁾

마르셀 뒤샹 ‘샘’, 존 케이지 ‘4분 33초’ 등 어떤 사람이 보기엔 이해하기 힘든 작품도 제작자가 말하는 작품의 의미에 예술이라 생각하고 감상, 구매한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의 마음에 들어서라는 이유를 가지고 예술이라 생각하기도 한다. 일단 ‘유명해져라. 그러면 똥을 싸도 박수를 받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 유명한 예술가가 이해하기 힘든 작품을 만들어도 이 예술가만의 개성이다. 라며 예술 작품으

2) “예술”, 두산백과 두피디아, 2022년 11월 12일 접속,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27642&cid=40942&categoryId=32856>

3) “예술가”, 위키백과, 2022년 11월 15일 접속,
<https://ko.wikipedia.org/wiki/%EC%98%88%EC%88%A0%EA%B0%80>

4) “군중심리”, 국어사전, 2022년 12월 5일 접속,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67839&cid=40942&categoryId=31531>

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해하기 힘든 작품을 유명한 예술가 몇 명이 “이건 엄청난 예술 작품이야!”라고 했을 경우 군중심리에 의해 자신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점점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고 AI가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과정이 될 것이라 본다. 이것이 ‘타인의 인정’의 중요성이라 생각한다.

2.2. AI의 발달과정과 AI의 현재 예술 기술

‘AI를 예술가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AI의 발달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 이유는 AI가 처음부터 지금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점차 발전하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도 처음부터 지금의 예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처럼 말이다.

발달과정을 알아보기 전 AI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AI란 쉽게 말해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자체 성능을 반복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⁵⁾

인공지능의 발달은 1950년 영국 수학자 앨런 튜링의 ‘계산 기계와 지능(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이라는 논문에서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방법, 지능적 기계의 개발 가능성, 학습하는 기계 등에 대해 기술한 것을 현실화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1980년대 산업계에 전문가 시스템이 도입되며 본격적으로 확산하게 된다. 전문가 시스템은 ①지식과 경험의 데이터베이스화 ②의사결정 추론엔진 ③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있는데, 이 당시 추론엔진 기술은 베이스(Bayes)기반 확률적 방법과 또 다른 접근법으로 0과 1 사이에도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는 퍼지(Fuzzy)이론을 통해 다중 값 논리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주로 활용되었다. 2000년대에 이르러 힌튼 교수의 Deep Belief Network를 기반으로 인간의 뇌를 모방하는 심층신경망(딥러닝) 기술이 실용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⁶⁾

지금의 AI는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s)’이라는 기술을 적용하여 그림을 만들어 낸다. 또, 기존의 작품만을 단순히 변형시키는 방법보다 더 인간의 예술 창작 방식과 유사한 기술도 있다. ‘생성적 적대 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ural Networks)’을 이용한 기술이다. 이는 생성자(generator) 신경망과 분류자(discriminator) 신경망, 두 모델로 이루어져 있다. 마치 인간 예술가가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림을 완성해 나가듯이, 이 두 신경망은 서로 평가하고, 경쟁하고 보완하는 일을 한다.⁷⁾ AI가 단순히 작품을

5) “AI란? 인공 지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OCI, 2022년 11월 13일 접속, <https://www.oracle.com/kr/artificial-intelligence/what-is-ai/>

6) 주민식, “인공지능은 어떻게 발달해왔는가, 인공지능의 역사”, SAMSUNG SDS, 2022년 11월 13일 접속, https://www.samsungsds.com/kr/insights/091517_cx_cvp3.html

7) 김전희, 「인공지능 그림의 예술성」, 『미학예술학연구』 제63집(2021), 173-174쪽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처럼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여러 과정을 거침으로써 AI 또한 예술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2.3. 모방

2.2.의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봐야 하는 핵심적인 단어는 ‘모방’이다. 모방이란 다른 예술가의 제작을 모범으로 삼아 그것과 같은 방식으로 제작하는 것, 즉 대상을 모방하는 경우와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을 모방하여 그것과 같은 모양의 것을 제작하는 것, 즉 대상을 묘사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⁸⁾

당신은 모방예술이라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가? 모방예술이란 현실의 사물이나 그 움직임, 소리 따위를 모방하여 재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예술이다.⁹⁾ 모방예술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자면 아래의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림1]은 빈센트 반 고흐의 <정오의 휴식>이고, [그림2]는 장 프랑수아 밀레의 <낮잠>이라는 작품이다.



[그림1]



[그림2]

두 그림 속 사람의 모습, 배경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고흐는 생전 마음에 드는 작품을 자주 모사했다고 한다.¹⁰⁾ 모사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고흐의 그림은 예술 작품으로서 미술관에 전시되고 있고, 인정받고 있다. Lucius Annaeus Seneca의 “모든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다.”¹¹⁾ 이 말로 생각해보았을 때 고흐가 모사한 밀레의 <낮잠>도 자연을 눈으로 보고 그린 것이기 때문에 자연의 모방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은 없으며 현재는 오래전보다 알려져있는 것이 더 많고 인간이 찾아볼 수 있는 수단 또한 넓어졌다. 그렇게 무언가

8) “모방”, 세계미술용어사전, 2022년 11월 14일 접속,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894218&cid=42642&categoryId=42642>

9) “모방예술”, 국어사전, 2022년 11월 15일 접속,

<https://ko.dict.naver.com/#/entry/koko/caa1adc7c64d4212a324a65a9319e578>

10) 쿠쿠파, “오르세미술관展 :: 고흐의 <정오의 휴식> VS 밀레의 <낮잠>”, 온갖 기록, 2022년 11월 14일 접속, <https://m.blog.naver.com/dms0725/220857319546>

11) “명언 정보”, NAVER, 2022년 11월 14일 접속,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y_top&where=nexearch&query=%EC%98%88%EC%88%A0+%EB%AA%85%EC%96%B8&oquery=%EB%AA%A8%EB%84%A4+%EA%B3%A0%ED%9D%90+%EB%AA%A8%EB%B0%A9&tqi=h3cDNwprvOsssggeaeGsssssc0-374350

를 보고, 배움으로써 더하거나 만들어 낸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AI도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을 바탕으로 또 다른 작품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도 AI의 알고리즘과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2.4. 창조

위 2.1.에서 예술가에 대해 설명할 때 작품을 형성시키는 인간의 ‘창조’ 활동이라고 설명했는데, 또 어떠한 사람들은 ‘2.3.에서 한 말에 따르면 AI는 모방을 한 것일 뿐 창조를 한 것은 아니기에 예술가가 아니다.’라고 말을 꺼낼 수 있다. 창조는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¹²⁾ 이 뜻에서 ‘전에 없던 것’에 주목해보자. 필자는 있었던 것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도 창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기존에 있던 것이니 창조가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던 것과 기존에 있던 것을 합친 것은 없었던 것이고 처음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I도 창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3. 결론

지금의 AI는 단순히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처럼 여러 과정을 거치며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낸다. 이러한 점에서 AI도 인간과 같이 예술가라고 볼 수 있다. 예술가라는 정의, ‘예술을 직업 혹은 생업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인간이 서술한 것이며, 인간만이 예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예술을 하기 위해 프로그래밍 된 AI라면 그것이 예술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모방’이라는 예술의 한 분야와 기존에 있던 것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AI가 사전적으로 정의 내려진 예술가의 의미와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기에 예술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군중심리를 이용한 타인의 인정. 이러한 것을 통해 AI가 예술가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12) “창조”, 국어사전, 2022년 12월 5일 접속.

<https://ko.dict.naver.com/#/entry/koko/b66c41c4e98e4a0c96526cbee7cbec67>

참고 문헌

논문

김전희, 「인공지능 그림의 예술성」, 『미학예술학연구』 제63집, 2021, 174쪽.

사이트

김지연, “美 미술전서 AI가 그린 그림이 1위…"이것도 예술인가" 논란”, 연합뉴스, 2022년 11월 13일 접속, <https://www.yna.co.kr/view/AKR20220904008400009>

“대중심리”, 국어사전, 2022년 12월 5일 접속,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67839&cid=40942&categoryId=31531>

주민식, “인공지능은 어떻게 발달해왔는가, 인공지능의 역사”, SAMSUNG SDS, 2022년 11월 13일 접속, https://www.samsungsds.com/kr/insights/091517_cx_cvp3.html

쿠쿠파, “오르세미술관展 :: 고희의 <정오의 휴식> VS 밀레의 <낮잠>”, 온갖 기록, 2022년 11월 14일 접속, <https://m.blog.naver.com/dms0725/220857319546>

“AI란? 인공 지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OCI, 2022년 11월 13일 접속,
<https://www.oracle.com/kr/artificial-intelligence/what-is-ai/>

“명언 정보”, NAVER, 2022년 11월 14일 접속,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 ty.top&where=nexearch&query=%EC%98%88%EC%88%A0+%EB%AA%85%EC%96%B8&oquery=%EB%AA%A8%EB%84%A4+%EA%B3%A0%ED%9D%90+%EB%AA%A8%EB%B0%A9&tqi=h3cDNwprvOsssggeaeGssssssc0-374350

“모방”, 세계미술용어사전, 2022년 11월 14일 접속,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894218&cid=42642&categoryId=42642>

“모방예술”, 국어사전, 2022년 11월 15일 접속,
<https://ko.dict.naver.com/#/entry/koko/caa1adc7c64d4212a324a65a9319e578>

“예술”, 두산백과 두피디아, 2022년 11월 12일 접속,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27642&cid=40942&categoryId=32856>

“예술가”, 위키백과, 2022년 11월 15일 접속,
<https://ko.wikipedia.org/wiki/%EC%98%88%EC%88%A0%EA%B0%80>

“창조”, 국어사전, 2022년 12월 5일 접속,
<https://ko.dict.naver.com/#/entry/koko/b66c41c4e98e4a0c96526cbee7cbec67>

